韓 國 保 健 看 護 學 會 誌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37. No. 1, 43 - 53, April 2023

http://dx.doi.org/10.5932/JKPHN.2023.37.1.43
중심단어 : 어린이집, 우울, 탄력성, 스트레스, 교사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영란** · 박선남*** · 이미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초저출산 상태이다. 인구는 사회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므로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량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Lee, Park, & Lee, 201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20). 최근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사회적 사건들이 있어 보육교사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평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보육시설대상 인증평가 실시와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인력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7년 이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건강과 안전영역을 포함시키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평가요소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사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과 안전은 간과되고 있다(Chung, 2015; Lee, Park, & Lee, 2016; Lee, Park, & Lee, 2019; Lee, Park, & Lee, 2020). 보육교사의 건강이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중요 요인이며(Cho & Kim, 2014; Lee, Park, & Lee, 2020) 보육교사의 직무에 건강이 영향요인임에도 건강영역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부족한 상황이다(Lee, Park, & Lee, 2019).

최근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교사를 심리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Chung, 2015; Lee, Park, & Lee, 2016; Park & Ha, 2018). 감정노동은 조직의 가치와 정서 규범에 따라 개인이 정서를 통제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노동은 주로 서비스직의 종사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Chung, 2015).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은 건강

* 본 연구는 2020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snjc 2020-001).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https://orcid.org/0000-0001-7908-7185)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https://orcid.org/0000-0003-4151-9442) (교신저자 E-mail: nam4868@naver.com)
**** 예다솜어린이집 원장(https://orcid.org/0000-0001-8922-311X)
• Received: 10 March 2023 • Revised: 12 April 2023 • Accepted: 18 April 2023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Sun-Nam*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 Seodaemoon-Gu, Seoul 03617, Korea
Tel: +82-2-2287-1738, Fax: +82-2-395-8018, E-mail: nam4868@naver.com

관련 행위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Lee, Park, & Lee, 2020)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감정노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는 우울이다. 우울은 개인의 내적 혹은 외적 요구가 개인의 대처수준을 넘는 부정적인 경험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Jeong, & Pyo, 2018; Yang, S. et al., 20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주로 직무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Ahn, 2018; Jung & Lee, 2014; Lee, Park, & Lee, 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의 매개효과가 있고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가 보육교사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줌을 고려할 때(Jung & Lee, 2014), 우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요인의 영향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응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달된 개념이다. Wagnild와 Young (1990)은 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적응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성격 특성이라고 하였으며 Winfield (1994)는 탄력성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변화되는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Kander (1989)는 탄력성이란 스트레스에 대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연관을 보이며 보육교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의 영향요인이므로(Lee, Park, & Lee, 2020) 자아탄력성과 함께 스트레스 탄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보육교사의 우울에 관련된 개념으로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을 연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감정노동군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탄력성 측면에서 우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영유아 성장발달과 가족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심리적 건강증진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을 파악한다.
-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보육교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국공립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81명으로, 이들은 연구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적정 대상자 수의 산출은 G*Power(Version 3.1)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투입할 독립변수 9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한 최소 표본 수는 166명이며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18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2명을 제외하고 최종 18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Lee (2007)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연적 행동(3문항), 표면적 행동(5문항), 내면적 행동(5문항)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해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Lee (2007)의 도구를 활용한 Chung (20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2이었다.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3)에서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의 43문항 중 Lee, Park과 Lee (2020)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 2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직무요구(4문항), 직무자율(4문항), 관계갈등(3문항), 직무불안정(2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직장문화(3문항)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Lee, Park과 Lee (20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Park (2011)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분노조절 2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스트레스 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Ahn (2018)이 개발한 스트레스-탄력성 지향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결점관점 6문항, 당위적 사고 6문항, 역량인식 6문항, 사회적 지지 6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Ahn (201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이었다.

5) 우울

본 연구에서는 Cho와 Kim (1993)이 개발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한국어판의 20개 문항을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대부분 그랬다' 3점, '종종 있었다' 2점, '가끔 있었다' 1점, '극히 드물다' 0점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군의 기준은 총점 21점 이상으로 한다 (Heo, 2007). Cho와 Kim (199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No 202106-HR-009-03)을 받은 후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다. 연구자가 국공립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총 18개 어린이집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어린이집의 원장, 원감 및 보육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의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정도이었으며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1.0을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20~29세가 58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51명(28.3%), 40~49세가 49명(27.3%), 50세 이상 22명(12.2%) 순으로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98명(54.1%)이었다〈Table 1〉.

직무 특성으로는 관련 자격증은 모두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1급 자격증 소지자가 114명(64.0%)이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141명(78.3%)이었고 직급으로는 일반교사가 119명(65.7%)로 가장 많았다. 현장교육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59명(32.6%), 보육아동의 연령은 1세인 경우가 39명(22.1%), 2세인 경우는 36명(20.5%)로 가장 많았다. 급여는 월 201만원 이상인 경우가 131명(72.4%),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인 경우가 91명(50.3%), 근무시작시각은 오전 9시 이후인 경우가 120명(71.9%), 월 야근횟수는 0회인 경우가 71명(39.4%), 1회인 경우는 59명(32.8%)이었다〈Table 1〉.

2.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정도

감정노동 정도는 65점 만점에 평균 49.83±5.23점(37~62점)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92점 만점에 평균 47.70±6.87점(25~73점)이었고 자아탄력성은 145점 만점에 평균 108.67±5.48점(64~145점)이었다. 스트레스 탄력성은 120점 만점에 평균 78.06±8.33점(57~104점)이었으며 우울은 60점 만점에 평균 8.52±7.58점(0~40점)이었고 우울군(21점 이상)은 17명(9.4%)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결혼상태에 따라 미혼인 경우가 29.48±8.23점으로 기혼인 경우의 27.29±6.59점보다 높았다(t=1.99, p=.048). 직무 특성에서 월 야근횟수가 0회인 경우가 26.54±6.40점으로 1~2회인 경우의 29.51±7.01점, 3~4회인 경우의 29.67±6.46점, 5회 이상인 경우의 30.23±11.35점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2.63, p=.051)〈Table 1〉. 그 외 다른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4.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간의 상관관계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r=-.37, p<.001, r=-.49, p<.00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탄력성도 높게 나타났다(r=.72, p<.001).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r=.42, p<.001),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탄력성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r=-.58, p<.001, r=-.55, p<.001)〈Table 3〉.

5. 보육교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에 대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보육교사 우울의 영향 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β=.19, p=.005), 자아탄력성(β=-.37, p<.001), 스트레스 탄력성(β=-.20, p=.031)이며, 변수의 설명력은 39%이었다(F=38.97, p<.001)〈Table 4〉.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인에 대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43~.76로 나타나 1.0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31~2.35로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86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성인기 여성 인구집단이며 보육의 질과

영유아 및 가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들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to Participants' General and Job Characteristics (N=18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F	p
age(yr)*	20≤~≤29	58(32.2)	29.07±6.92	1.25	.294
	30≤~≤39	51(28.3)	29.43±9.74		
	40≤~≤49	49(27.3)	26.73±5.68		
	50≤	22(12.2)	28.50±7.27		
marriage	No	98(54.1)	29.48±8.23	1.99	.048
	Yes	83(45.9)	27.29±6.59		
Type of certification*	Child care teacher(2 grade)	62(34.8)	28.55±7.55	0.48	.623
	Child care teacher(1 grade)	114(64.0)	28.11±7.21		
	etc.	2(1.2)	33.00±16.97		
Working pattern*	Full-time	141(78.3)	28.74±7.90	0.91	.362
	Part-Time	39(21.7)	27.49±6.39		
position	Head teacher	22(12.2)	28.41±7.63	1.29	.279
	Teacher	119(65.7)	29.17±8.15		
	Teacher assistant	29(16.0)	26.52±5.55		
	etc.	11(6.1)	26.27±4.45		
Working career (year)	<1	12(6.6)	29.42±5.76	0.90	.468
	1≤~<3	34(18.8)	26.47±6.80		
	3≤~<5	28(15.5)	29.86±8.91		
	5≤~<10	59(32.6)	28.78±6.94		
	10≤	48(26.5)	28.48±8.39		
childage* (year)	0	26(14.8)	27.42±7.08	0.42	.866
	1	39(22.1)	29.82±9.10		
	2	36(20.5)	28.92±7.68		
	3	24(13.6)	27.17±5.31		
	4	12(6.8)	28.50±4.23		
	5	11(6.3)	28.45±9.49		
	Mixed	28(15.9)	28.14±8.47		
Income (10,000won/month)	≤160	26(14.4)	25.96±4.74	1.82	.166
	161≤~≤200	24(13.2)	29.63±6.25		
	201≤	131(72.4)	28.76±8.17		
Working hour(hr)	<8	28(15.4)	26.11±4.98	1.89	.132
	8≤~<9	91(50.3)	28.31±7.52		
	9≤~<10	51(28.2)	29.35±8.24		
	10≤	11(6.1)	31.82±9.35		
Start working time*	Before 9 o'clock	47(28.1)	29.74±8.01	1.04	.298
	9 o'clock	120(71.9)	28.35±7.66		
Number of Overtime* (month)	0	71(39.4)	26.54±6.40	2.63	.051
	1~2	59(32.8)	29.51±7.01		
	3~4	24(13.3)	29.67±6.46		
	Above 5	26(14.5)	30.23±11.35		

* Included missing data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65점 만점의 평균 49.83점(3.83점)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Chung (2015)의 3.67점과는 유사하고 Yoo (2017)의 4.02점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육교사와 유사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인구집단의 하나인 아동간호사의 감정노동은 3.7점(Kim, Park, Seo, & You, 2022)으로, 보육교사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육교사의 건강이 영유아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Lee, Park, & Lee, 2020)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소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영유아의 돌봄과 성장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점(Chung, 2015; Yoo, 2017) 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들의 감정노동의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90점 만점의 평균 47.70점(2.0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Lee, Park과 Lee(2020)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측정도구가 다르고 민간 및 가정형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ho & Kim, 2014; Yoo, 2017)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의 하위요인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도구는 원장의 지도력, 행정적 지원, 학부모 및 동료관계의 하위 요인을 측정한 것으로 하위요인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직무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와 보상 및 직장문화를

Table 2. Emotional Labor, Job Stress, Ego Resilience, Stress Resilience, Depression on Teachers in Child Day Care Center (N=181)

Variables	Mean±SD/n(%)	Minimum	Maximum
Emotional labor	49.83± 5.23	37.00	62.00
Job stress	47.70± 6.87	25.00	73.00
Ego resilience	108.67±15.48	64.00	145.00
Stress resilience	78.06± 8.33	57.00	104.00
Depression	8.52± 7.58	0.00	40.00
Above 21 point	17(9.4)		
Below 20 point	164(90.6)		

Table 3. Correlations of the Major Variables with Depression (N=181)

	Emotional labor	Job stress	Ego resilience	Stress resilience
	r(*p*)	r(*p*)	r(*p*)	r(*p*)
Job stress	.036(.631)			
Ego resilience	.059(.427)	-.371(<.001)		
Stress resilience	.006(.936)	-.487(<.001)	.720(<.001)	
Depression	.056(.455)	.421(<.001)	-.576(<.001)	-.550(<.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of Teachers in Child Day Care Center (N=181)

Variables	B	S.E	*β*	t(*p*)	Adj R^2	F	*p*
Constant	31.74	7.18		4.42 (<.001)	.39	38.97	<.001
Job stress	.21	.07	.19	2.85 (.005)			
Ego resilience	-.18	.04	-.37	-4.34 (<.001)			
Stress resilience	-.18	.08	-.20	-2.18 (.031)			

포함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향후에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이 직무조건이 유사한 보육교사 대상의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의 수준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145점 만점의 평균 108.67점(3.75점)으로, Cho와 Min (2019)의 보육교사 대상의 연구와 Lee와 Lee (2017)의 초등교사 대상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탄력성은 120점 만점에 78.06점(3.25점)으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나 치위생사의 스트레스 탄력성 점수인 3.09점(Yoon & Oh, 2021)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탄력성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하고 대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황에 대한 적응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와 회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Ahn, 2018; Cho & Min, 2019). 탄력성이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와 태도 및 분노조절에 대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며 스트레스 탄력성의 향상을 위해 문제에 대한 관점과 스스로에 대한 역량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Jung, Kang, & Park, 2017; Lee, & Cho, 2021). 보육교사 집단의 특성이 성인기 여성이자 영유아 돌봄자이며 영유아 가족에게 직간접적인 건강지지자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탄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탄력성 향상과 회복을 위한 세부 영향요인 분석 및 탄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우울은 60점 만점의 평균 8.52점(0.43점)으로, 보육교사 대상의 연구결과(Choe, 2016)와 초등교사 대상의 연구결과(Lee & Lee, 2017) 보다 낮게 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Choe (2016)의 연구는 온라인 상에서 전국 어린이집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Lee와 Lee (2017)의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근무지역, 근무어린이집의 유형, 직군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추후 보육교사의 우울에 대한 지역과 근무기관 유형별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군(21점 이상)이 9.4%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보고한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 7.7%보다 높은 결과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가 정신건강질환군으로써의 우울장애에 대한 유병률을 제시하고 있어 스크리닝 수준의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나 보육교사의 9.4%가 우울을 경험한다는 결과는 보육교사 인구집단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우울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결혼 상태에 따라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교사 대상의 연구(Lee & Lee, 2017)에서는 결혼여부에 따라 우울의 차이는 없게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보육교사의 결혼 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확인과 그 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으로 추후 전국 단위의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탄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업무부하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Lee, Chae, Kim, Park, & Lee, 2016)와 초등교사의 우울과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Lee & Lee, 2017)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관련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 중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이 우울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초등교사의 우울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Lee & Lee, 2017). 이는 보육교사의 우울관리를 위해 직무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돌봄제공자이며 성장발달 촉진자이고 가족건강 및 가족발달의 지원자이므로 지역사회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구집단이다. 이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일차적 접근전략이라 판단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탄력성이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보육교사의 우울을 줄여주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만, 본 연구가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추후 전국단위 및 다양한 기관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탄력성 정도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우울예방과 감소 및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 간호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간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구성 인구집단이면서 산업보건간호의 대상자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지역사회의 간호관리 대상이다. 또한 보육교사 인구집단이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평생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인 여성인구가 대부분이고 초기성인기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수가 많다. 따라서 보육교사 직업군에 대한 접근과 생애주기별 여성인구집단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간호 측면과 건강증진전략방향 도출에서 연구결과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서울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8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보육교사 중 미혼인 경우가 결혼을 한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높았으며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탄력성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탄력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보육교사의 우울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Ahn, B. H.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Resilience Orientation Scale.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9*(1), 43-63.

Cho, K. S., & Kim, E. J. (2014). Early childhood teachers: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quality of life, self-determinacy,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269-288.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Cho, W. M., & Min, H. Y.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focused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y and work engagement of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7*(4), 129-137. https://dx.doi.org/10.7466/JKHMA.2019.37.4.129

Choe, H. S. (2016). Depression and teacher efficacy of day care center teachers in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3*(2), 71-90.

Chung, H. (2015).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on their burnouts: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a teacher's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Heo, J. (2007).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Jeong, J. O., & Pyo, E. Y. (2018).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stress level and health status on burnout. *Journal of Korean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2), 347-356. https://doi.org/10.5762/KAIS.2018.19.2.347

Jung, E. J., Kang, K. A., & Park, Y. S.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preliminary child care teachers' life stress,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1*(4), 219-249. https://doi.org/10.22590/ecee.2017.21.4.219

Jung, H. Y., & Lee, K. H. (2014). The path model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urnover intentions with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burn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3), 159-181.

Kander, K. D. (1989). Resilience: responding to a adversit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 Mental Health Service, 27*(7), 20-59.

Kim, H. E., Park, J. H., Seo, E. J., & You, M. A. (2022).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grit on job satisfaction among ped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8*(3), 251-259. https://doi.org/10.22650/JKCNR.2022.28.3.251

Lee, J. M., & Cho, K. S. (2021). Exploring of resilience in emergency infectious disease to moderate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childcare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4), 509-519.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509

Lee, J. W. (2007).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 with emotional labor of childcare teacher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motional values, job satisfaction, burnou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ee, K. S., Chae, J. Y., Kim, M. S., Park, J. A., & Lee, J. M. (2016). The differences in job stress, teacher efficacy,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and their influences 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12*(4), 23-40. https://dx.doi.org/10.14698/jkcce.2016.12.04.023

Lee, S. O., & Lee, S. M. (2017).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7), 618-626. https://doi.org/10.5762/KAIS.2017.18.7.618

Lee, Y. R., Park, S. N., & Lee, M. R. (2016). Impact of job stress,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n job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5*(4), 259-267. https://doi.org/10.5807/KJOHN.2016.25.4.259

Lee, Y. R., Park, S. N., & Lee, M. R. (2019).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1), 123-135. https://doi.org/10.5932/JKPHN.2019.33.1.123.

Lee, Y. R,, Park, S. N., & Lee, M. R. (2020).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health status on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4*(1), 99-111. https://doi.org/10.5932/JKPHN.2020.34.1.9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20). *Outline of child care service in 2020.* Retrieved January 5, 2023, from http://www.mogef.go.kr/io/lib/lib_v200.do?id=2874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2021.* Retrieved January 4, 2023, from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3).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KOSS).* Retrieved January 6, 2023, from https://www.kosha.or.kr/oshri/publication/researchReportSearch.do?mode=view&articleNo=62509&attachNo=

Park, J. H., & Ha, C. S.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2), 569-582.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569

Park, O. S. (2011).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go-resilience and the job satisfaction of the child-care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Wagnild, G. M., & Young, H. M. (1990). Resilience among older woman.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2*(4), 252-255.

Winfield, L. F. (1994). *Developing resilience in Urban youth. Urban Monograph Series.* Oak Brook, IL: North Central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Retrieved January 4, 2023, frome http://ecap.crc.illinois.edu/eecearchive/books/resguide/winfield.pdf

Yang, S. et al. (2013).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4th ed.* Seoul: Hyunmoon-sa.

Yoo, K. S.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in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affecting their job stress and their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6*(4), 23-38. https://dx.doi.org/10.17643/KJCE.2017.26.4.02

Yoon, S. U., & Oh, N. R. (2021). Dental hygienist's stress resilience, anger expression, job satisfaction convergence effect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 208-215.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1.208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Child Day Care Center's Teachers*

Lee, Young-Ran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Park, Sun-Nam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Lee, Mi-Ran (Director, Yaedasom Nursery School)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of teachers in child day care centers. **Methods:** The study 181 teachers working at national/public or child day care centers certifi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Seoul, South Korea. Data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1, and emotional labor, job stress, ego resilienc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depression of child day care center's teachers 8.52±7.58 out of 60 points, and the depression group (above 21 points) was 9.4%. Depression in child day care center's teacher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r=.42, p<.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 and stress resilience (r=-.55, p<.001).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child day care center's teachers were found to be job stress (p=0.005), ego resilience (p<.001), stress resilience (p=0.03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9%.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for teachers of child day care centers, it is necessary to include measures that reduce job stress and strengthen ego resilience and stress resilience.

Key words : Child day care centers, Depression, Psychological resilience, Psychological stress, School teacher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from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in 2020(snjc 2020-001).*